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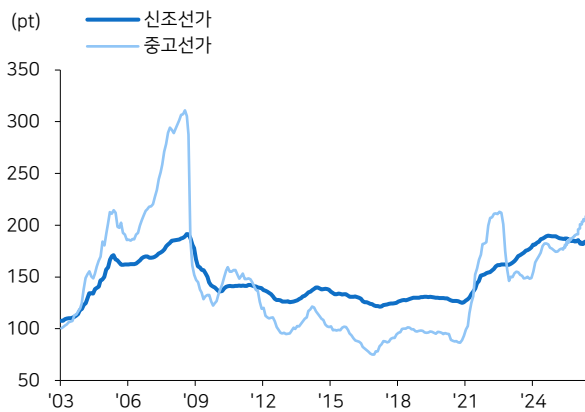


2026. 5. 14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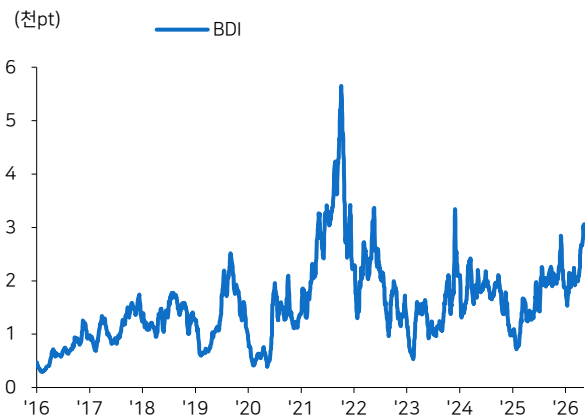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4p (+0.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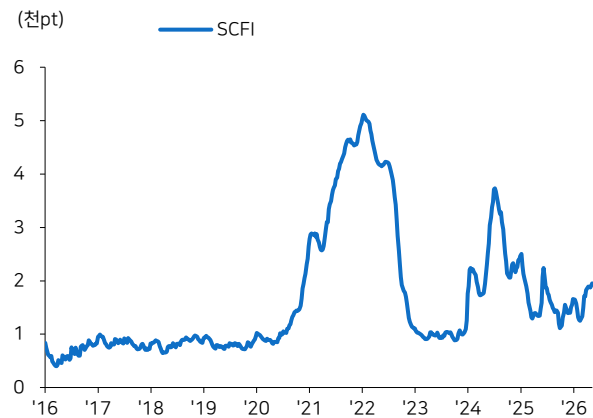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6.0달러 (+20.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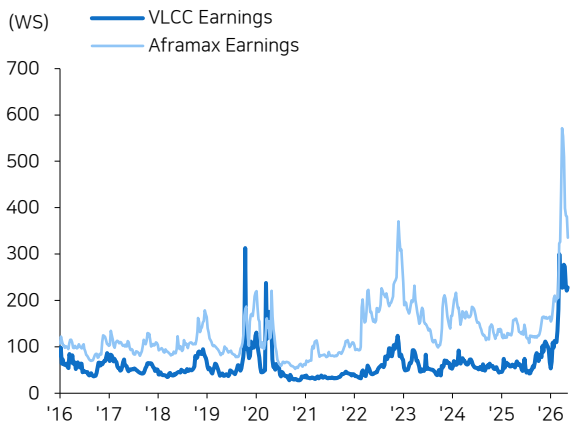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63.0p (+6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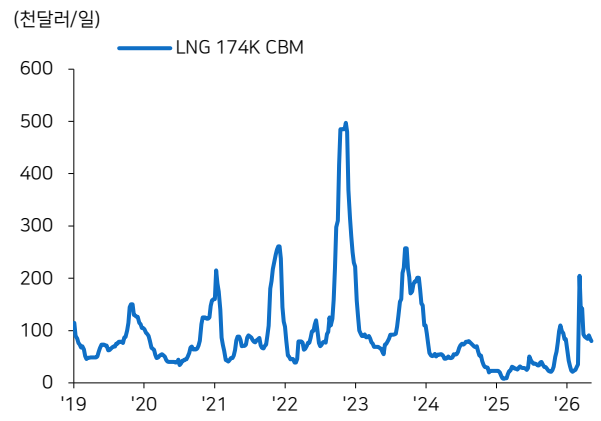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54.2(+42.8 WoW)



VLCC Spot Rate 227.8WS (+7.0p WoW)



LNG Spot 운임 80.0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이 대통령 "조선업, 경기변동 위험 노출...고용유지 등 정부 역할 중요" (뉴시스)

<https://zrr.kr/LEmimV>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 산업의 경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자체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이 호황과 불황의 폭이 커 고용 불안정성과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특성을 언급하며, 이번 호황기를 발판 삼아 대·중소 조선사 및 협력사 간의 상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장의 과실을 노사가 함께 나누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투자 협력의 핵심 의제인 미국의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 MASGA를 언급하며 국내 조선업 발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 유지와 기자재 납품 업체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려졌다.

정부, K-조선 수출에 '16兆' 금융 지원한다... AI 조선소에는 1조 투입 (조선비즈)

<https://zrr.kr/uDk5Yb>

정부가 K-조선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조 원 규모의 AI 조선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으로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해 조선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공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50%까지 끌어올리는 스마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국산화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해 2030년까지 15,000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견고한 조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선업으로 번진 성과급 논쟁...HD 현대중공업 간부들 지급 상한 상향 촉구 (헤럴드경제)

<https://zrr.kr/8AKjOx>

HD현대중공업 사측이 조선업 호황에 맞춰 책임급 사무직 간부의 성과급 상한 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 인센티브 폐지안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됨. 간부급 직원들은 실적 대비 낮은 성과급 상한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이 그 대안으로 노사 합의 사안인 설계 직군 인센티브 폐지를 검토하면서 비노조원(간부)의 혜택을 위해 노조원의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전해짐. 노조 측은 성과급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복지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이 최근 재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성과급 보상 체계 및 직군 간 이해관계 충돌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화 필리조선소, 美 멧슨 컨테이너선 인도 연기 (더구루)

<https://zrr.kr/LL8MoZ>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선사 Matson Inc.으로부터 수주한 알로하급 컨테이너선 3척의 인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늦춰 2028년 2분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3,2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2022년 약 10억 달러에 계약되었으나, 현지 숙련공 부족 등 미국 조선소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 문제로 인해 첫 호선인 '마크아호'의 인도 시기가 내년 1분기로 조정되었다고 전해짐. 한화필리조선소는 현재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안벽 확대 등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숙련 인력을 4,000명까지 늘려 연간 20척 규모의 건조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현지 생산성 문제를 정면 돌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Thenamaris mulls product tanker order in South Korea (TradeWinds)

<https://zrr.kr/LXWuH2>

그리스 선사 Thenamaris가 선대 교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D현대그룹과 최소 1억 달러 규모의 MR 탱커 2척 건조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Thenamaris는 현재 12척의 MR 탱커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선박의 노후화에 따라 신조 발주를 검토 중이며, 이번 물량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9년경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올해 들어 HD현대에는 Hafnia와 GEM 등으로부터 이미 18척의 MR 탱커를 수주하며 해당 선종에 대한 높은 수요를 증명하고 있으며, Thenamaris는 최근 중국 조선소에 VLAC를 발주하는 등 가스선과 탱커를 아우르는 공격적인 선대 확장 및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다.

BW LNG linked to LNG carrier newbuildings at HD Hyundai Samho (TradeWinds)

<https://zrr.kr/JucBrW>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수주를 발표한 LNG 운반선 2척의 실제 선주로 BW LNG가 지목되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 규모는 총 7,485억 원(적당 약 2억 5,400만 달러)으로 영암 HD현대삼호에서 건조되어 2029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해당 선박들이 BW LNG가 지난해 12월 체결했던 계약의 옵션 물량으로 파악한다고 전해짐. 특히 BW LNG가 HD현대 및 GTT 등과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3탱크 LNG 운반선' 설계를 개발 중인 만큼 이번 신조선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연간 목표액의 약 48.6%를 달성했다고 알려졌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